

호남 쇼핑 1번점... "올해 최대 성과는 지역 브랜드 전국화"

광주신세계 개점 25주년

지역 판로 개척·매장 고급화
 '지역 상생' 기본 가치로 매출 올려
 유망 상품 발굴하고 키워내
 전국 진출 돕는 '전초기지' 역할
 25주년 맞아 월말까지 다양한 행사



이동훈 대표이사

"광주에서 프리미엄 해양 심층수가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광주·전남 브랜드들이 전국에 이름을 알렸으면 하는 마음에 각 점장 선물로는 꼭 우리지역 특산품을 고릅니다."

올해 초 ㈜광주신세계 수장을 맡은 이동훈 대표이사는 13일 개점 25주년을 앞두고 "광주신세계가 호남 쇼핑 1번점 명성을 잇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망 상품을 발굴하고 키워낸 뒤 전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5년 8월25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문을 연 광주법인(주)광주신세계가 25돌을 맞았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올해 유통업계는 사상 최악의 시기를 보냈지만, 광주신세계는 '지역 상생'을 기본 가치로 내걸며 올 2분기 매출을 두 자릿수 올렸다.

광주신세계의 올 2분기(3-6월) 매출액은 389억 39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7% 증가했다. 이는 지난 1분기와 비교해서도 17% 증가한 수치다. 광주신세계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무려 16.4%

(19억원) 증가한 130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2.1%(12억원) 오른 1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대표는 이 같은 실적은 '지역 판로 개척'과 '매장 고급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올 상반기 광주신세계가 올린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지역 브랜드의 전국화'를 꼽았다.

지난해 6월 지역 맛집 7곳과 새단장해 문을 연 '푸드 플라자'에서는 매년 새로운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에 입점한 '소맥베이커리'와 '신선한 주방'은 올해 1월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타임스퀘어)에 진출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들 브랜드는 서울 진출 뒤 목표 대비 매출 130%를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업계 최초로 현지법인으로 출범하며 '현지 바이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발굴해왔다. 신선식품 매장 납품 80% 이상을 지역 농가로부터 채우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판로를 찾지 못한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직거래 상생장터를 꾸준히 열고 있다.



올해 개점 25주년을 맞은 (주)광주신세계는 광주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 판로 확대'와 '사회공헌 강화'를 내걸었다. 서구 광천동 점포 전경.

곡성·무안·영암 등 전남 22개 시·군 농가가 상생 장터를 거쳐갔으며, 지난 6월 대구신세계를 시작으로 부산 센텀시티점, 강남점 등 전국 곳곳에서 순회전이 열리고 있다.

전남이 아열대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영광 애플망고는 광주신세계 뿐만 아니라 전국 점포에서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

이달 1주년을 맞는 8층 생활전문관은 가전가구의 고급화·전문화를 내걸고 광주신세계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매출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25주년을 맞아 이달 말까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벌인다.

광주신세계는 제휴카드로 당일 3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 '운현궁' 이불 제품 1000매를 선착순 증정한다. '운현궁'은 법인 출범 때부터 광주신세계가 양동시장에서 발굴해 전국화한 브랜드이다.

행사 기간 동안 합병 무화과·영광 수험 참굴비·남원 캠퍼 포도(14-20일)와 완도 전복·순천 복숭아·무안 햇고구마(21-27일) 등 지역 제철 농수산물도 특별 판매한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는 고흥·해남·진도 농가가 참여한 직거래 상생장터가 열린다. 이 기간 동안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전남쌀(500g)을 하루 100명 선착순 증정한다.

이대표는 "개점 기념 농수축산물 기획전에서는 광주신세계의 판촉비 지원을 늘려 납품농가의 부담을 줄였다"며 "생색내기용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역 특산품을 광주신세계에서 검증·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2분기 영업이익 3898억원 ... 2개 분기 연속 흑자

국제 연료가 하락 영향

한국전력이 국제 연료가 하락의 영향으로 2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

한국전력은 13일 연결기준으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89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올해 1분기 4306억원 흑자에 이어 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8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었다.

상반기 매출은 28조165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37억원(0.5%) 감소했다. 유가하락으로 발전 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전력구매비가 상반기에 2조5637억원 감소한 점이 실적 개선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전력판매량은 2.9% 하락했고, 전기판매 수익도 2000억원 줄었다.

계약 종별로 보면 산업용은 4.9% 줄었고, 교육용(-16.2%), 일반용(-1.8%) 등도 감소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주택용은 5.2% 늘었다.

원전 이용률은 77.6%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했고 운용 비용은 7000억원 증가했다.

한전 측은 "원전 이용률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저유가로 실적이 개선된 점을 보면, 한전 실적이 원전 이용률보다는 국제 연료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연료비 연동제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같은 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한전KPS는 연결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5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6.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37.53 (+5.18)	↓ 금리(국고채 3년) 0.815 (-0.012)
↑ 코스닥 854.77 (+9.17)	↓ 환율(USD) 1183.30 (-2.00)

무진기연, 원전 증기발생기 노즐담 국산화 성공

광주 원전설비 전문제조업체(주)무진기연은 원전의 증기발생기 노즐담(Nozzle Dam)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즐담은 가동 중인 원전을 유지보수할 때 증기발생기 노즐담구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로, 수조의 냉각수가 증기발생기 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지금까지 국산화하지 못해 지난 40여 년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무진기연은 주관기업으로 참여기업인 기계연구원(KIMM)과 함께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연구개발 과제(개발비 20억

원)를 수행해 지난해 12월 국산화에 성공했다.

또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완료해야 국산화 개발이 최종 완료되는데, 가동 중인 원전에서는 시험을 진행할 수 없어 건설 중인 신한울발전소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최근 국산화 개발은 완료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중인 원전에서 테스트는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국산화 성공을 돕기 위해 지원해줘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무진기연은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상의, 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광주상공회의소는 13일 광주·전남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장)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청와대 등에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시간

당 90mm, 사흘간 최대 600mm가 넘는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등 광주·전남이 큰 인명·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재정능력만으로는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광주에서는 1명이 사망, 이재민 309세대, 시설피해 1249건, 재산피해액 10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전남은 지난 12일 기준 인명피해 10명(사망 9명·실종 1명), 이재민 3187명, 재산피해 2837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광주지역은 지역 주력산업 업종인

자동차, 가전, 광산업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과 평동산업단지가 침수돼 200여 기업들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약 20여억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상의 측은 앞으로 피해 기업과 피해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